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철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57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7월 10일 금요일	Issue No.	1757
		Date	Aug. 22, 1969: Fri.

중동분쟁 四二九건 침략, 조발의 직시 정지를 대소통첩으로 증용요구 국경의 군사시설 철거도 요구

(동경 8월19일발, 공동) 북경의 신 화사통신의 방송에의하면, 중공정부는 19일 중국외무성으로부터 소련대사관에 전달한 항의서중에서, 소련정부에대해서 중국에대한 침범과 조발행위의 직시 정지를 강경히 요구, 이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모든 중대결핵에대해서 소련은 책임을 저야한다고 응고하였다. 오늘의 항의중에서, 중공은 금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두달동안에 소련측이 중공에대한 조발로 일어난 국경분쟁사건은 429건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들의 사건의 구체적내용에는 언급하지안코있으나, 심강성근경에서 8월13일에 일어난, 소련 중공양군의 충돌사건은 "중대한 유혈사건" 이라고하고, 또 6월11일, 소련 중공 양국의 본쟁지점이된 만주정계인 다만스기도 (중국측은 진보도) 의 충돌에서는 3명의 중국경비병이 부상한것등을 울리고있다. 소련, 중공 양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있는 다만스기 (진보도) 에서는 3월에 두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는데, 사망자 유무에대해서는 아무 말안했다.

신 화사방송은 기라의 충돌사건에도 언급하고, 소련은 중.소 국경에잇서서의 사태평상화를위해속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중요성을 표명하면서, 실제에는 양국국경의 사태를 긴장 표시키는 행위를 소련이 반복하고있다고 소련정부에 다음과같이 요구하고있다.

"중공정부는 소련정부에대해서, 소련의 중국에대한 침범과 조발행위를 직시 정지하는 동시에 소련이 비합법적수단에의해서 강구 구축한 모든 군사 기라의 시설을 직시 제거하고, 중.소국경 아원에잇서서의 중국선박의 정규항행에대한 방해물 금무 일체 정지할것을 요구한다"

북아일랜드 무력분쟁에 영국군 출동

(북아일랜드.벨푸아스 8월19일발, 에이피) 소수파의 캐트릭고도와 다수파의 신 고도사이에 일어난 무력충돌진압을위해 드디어 출동한 영국군은 남방 아일랜드국경방면으로부터의 캐트릭고도용원부대의 침입에대한 경계를 엄중시하였다. 에리틀러와 장갑차로 경비부대는 속속이 아일랜드국경방면에 집결되고있다. 아일랜드국내에서는 독립파의 민간자위대가 북아일랜드의 자치형집공을위해 의용군의 모집을하고있으며, 사태는 라관을 터라지안는다. 북아일랜드자치형 체스터.브러크수상은 윌슨영국수상과의 회담을위해 오늘 본토에 향하였다.



체코스로바키아 진군을 극력 변호

(투락 8월19일밤, 에이피) 소련을 히시하여 동방공산연합군의 체코스로바키아 진군의 일주년을 마치고 체코스로바키아 공산당수뇌 쿠스타브.우체서기장은 한시간만에걸친 연설에서, 동방연합군의 체코스로바키아진군은 유부제 전정부의 극단한 우익파로 생긴 억압한 사태를 수습 대처 하기 위한 사회주의진영으로서의 일수입은 처치이며, 결코 적국에대한 군사점령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공산군의 진군에대해서 구정부는 그의 권의를 국민에 전하지안했다. 라고 동방연합 체코스로바키아 침입을 극력 옹호하였다.

북선에서 또 피군기를 격추 승무원생사불명

(워싱턴 8월18일밤, 에이피) 격추된 미군 에리플러의 승무원 3명의 생사에관해서는 18일현재 아직 공식발표가없다. 그러나 시카고의 "주에부로를 잊지말라" 라는 조직의 위원장 들.인도스립 씨는 "북조선과 접촉중의 소시용에의하면, 3승무원은 생존하고있다" 라고 믿었다. 또 국방총성에서는 "미군기의 비행로위험을 위한 특별기동합대는 계속 한국반도 연해에서 행동중 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동기동합대의 위치는 불명인데, 국방총성에의하면, 미에리플러 격추 사건이후에도 배치에 변경이 없다고한다.

북선 자극을 미국측은 회피

(워싱턴 8월18일밤, 공동) 조선군사정계선의 북측에서 미군에리플러가 격추된 사건에대해서, 미국방총성측에서는 17일, 9대안 조의를 취한것인가에대해서 언명하기를 미하였다. 이번의 사건에서는 미당국의 최초의 반응으로보아, 미국정부는 이사건에서 불필요하게 북조선을 자극한 것을 미아도, "우발사건"으로서 처리하려고하고있다.

후전위의 개최를 미국요청

(서울 8월18일밤, 에이피) 재한미군사령부는 19일 조선후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격추된 미군에리플러의 승무원의 존재에대해서 협의하는것을 주목적으로하는데, 북조선측의 대답은 아직 명백지않다.

북비에트넬군 신공세준비중

(사이곤 8월18일밤, 에이피) 미군사령부발표에의하면, 17일부터 18일에걸쳐서 적의 야간조격은 24개소, 미군사망 3명, 부상 6명을 내었다. 또 미정찰에리플러 3기가 격추되고, 승무원 2명이 사망, 3명이 부상하였다. 미비 52폭격기대는 11차에걸쳐 간보리아국경으로부터 사이곤에걸쳐서 적의 진지를 폭격하였다. 미군측에의하면, 적은 오늘의 불탄사에대한 비에트넬인민결기날일에 당하여 신공세를 준비중이라고하며, 사이곤북서에는 현재 북비에트넬군병력 1만2천명이 전개중 이다.

깊어가는 비에트넬인 살인사건 후막

(남비에트넬, 콘.빈 8월19일밤 에이피) 미육군은 "구틴.베렛 사건" 에대한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다. 19일 사이곤의 기자단은 콘.빈의 미군사령부부속숙사에 구속중의 마셜.루오 육군대령이아 용의자의 장모 7명의 상해를 보는것을 처음으로 바라봤는데, 30회이상 가까이 못가고, 질문 하는것의 여가를받지못하였다. 루오대령을 격유으로부터 용의자중에는 상반신 마체의 자도있었다. 회피하고, 페이디오를 뜻코있었다. 마라스코대위는 회담을하면서 수차례 웃음을 흘렸다. 스미스군주는 병사숙사에 구금중이었다. 군의 비밀주의에대해서 워싱턴에서는 비난의 소파가 높아가고있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미버스하원군사위원장 (민주당) 도 메아드미 국방장관에 서한을보내고 "이사건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있다. 미국인은 사건에대한 권상을 알 권리가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리사육군 장관은 18일 워싱턴을 출발하여 태평양지역의 시찰여행을 떠났는데, 사이곤에서는 "구틴.베렛 사건" 이 오의의 중심이 될것으로보고있다. 이와동시에 미사장관은 동사건의 사정조사를위해 사무원명을 마명하였다. 국방총성은 이에대해서 "장관의 사이곤 방문과 사무원의 보도에의해 신중안 점으로 하고, 처분에대해서 의견을 주는것도있고, 용의자의 인권을 손상시키지도안코 발표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사건을 공포하고있다" 라고 믿고있다. 이로연으로보아, 육군이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는 20일에 용의자가 직시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한다.

핵확산방지조약 비준을 소련이 표의

(제네바 8월19일밤, 에이피) 25개국참가의 제네바핵확산회의의 모인.소련대표는 19일, "소련은 핵확산방지조약을 비준할 용의가있다" 라고 발언하였다. 미국, 소련은 작년7월 핵확산방지 조약에 조인하였는데, 비준은 아니라고있다. 동조약에는 여태까지에 90개국 이 조인, 18개국 이 비준하였다.

닉슨 대통령 헤인즈워스씨를 연방최고재판소 판사로 임명

(가주 새인도.트레멘 8월18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8일 투메멘.헤인즈워스 연방소회 재판소판사를 연방최고재판소판사에 지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소프랜드 상원사법위원장 (민주당)은 헤인즈워스판사의 지명에 찬의를 표명하고, 9월9일 이견에대해서 청문회를 열것을 결정, 또 애펜민주당상원의원도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부터 헤인즈워스 반대를 주장하고있는 자넷스공회당상원의원은 "이지명에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있다" 라고 믿었다. 또 전국육인지위당상원의원 힐린스사무국장은 "법 의로서 헤인즈워스임명에 적극적으로 반대 한다" 라고 해도를 명백히하고, 미국민주협회의 라우부회장은 "이대 최고재판소에 인종분리 주의와의 의수인이 임명되는것은 좋지않다. 긴박한 인종문제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것이다" 라고 믿었다.

사망자 백 = 44 명 태풍 "카린" 의 피해에 대해 계속연시행

(미시시피주 잭슨으로 8월19일밤, 에이피) 풍속 190마일의 태풍과 큰 파도와 최대의 피해를 받은 미시시피주 메시포만연안지역에서는, 북부지역이 진전됨에따라, 점점 태풍 "카린" 이 가져온 피해의 모기가 명백히 되어가고있다. 19일 잭슨으로에서 큰어린 고층 아마.용련호의 밑으로부터는 23개의 시체가 발견되고, 여태까지에 확인된 사망자는 136명에 이르렀다. 닉슨대통령은 18일, 동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지정, 백만불의 연방재해원조예상의 대상으로하였다. 각으로부터의 구호물자가 점점 들어오고있는데, 외도종을 싣고 뉴오리언스공항을 떠나버린 쇼벌리행거가 투락, 라고, 승무원4명이 전원 사망한다는 사고도 일어나고있다. 18일 적십자가 행한 조사에의한 주제로는 가옥의 피해는 완전붕괴가 2천호, 대파가 2천호이상, 개입부위 미시 심피주상원의원은 "사상자는 최종적으로 백50명내지 2백명, 부상자는 2천명이상이 될것이다" 라고 보고있다. 잭슨으로, 바이라스와 루이시야나의 3도시에서는 야간의출몰지명이 반명되고 용으로 주장한 국민군이 경계하고있다. 콘.윌리엄스 미시시피주지사는 메시포만연안의 피해 지역에 잠정적인 제엄령을 시행할것을 발표하였다.

(제 4 편)

신평풍 진압에 과학진의 대활약

(마이아미 8월19일발 에이피) "카밀"에어 대서양상에 발생한 태풍 "데미"는 현재 버뮤다 남동750마일, 서경 58.5도, 북위 25도의 지점에있고, 매시 백마일의 속도로 북서에 향하고있다. 그러나 열대태풍으로서의 이미 넓은 곳에까지 와있으며, 서방의 약한 기압의 계곡에 가까워진 오로잇지대에돌며 미본도에 상륙하지안는다는 예측도있다. 18일, "태풍자전" 반은 "데미"의 태풍의 눈에대해서, 대략의 좌상결정을 비행기에서 추하였다. 태풍 진압대책으로서 이러한 대규모의 작전은 역사상 이것이 처음으로, 아직 큰 효과는 모르나, 동계위의 책임자인 펜도리 박사는 18일발 귀착후, "계획실시는 다대한 성공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태풍자전은 상무성의 원경 과학용정과 해군과의 협력으로 행하여진것, 화확물 추위를 시험한 예로서는 61년의 "에스사", 65년의 "뷰타" 가있다.

첫번의 심장이식환자 결국 사망

(메이포타운 8월18일발, 에이피) 심장이식수술을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 살고있는 남아루 리카공 과학의 지퍼의사 윌리.부메이버그박사 (60세) 는 17일 사망하였는데, 동시의 수술을 담당 한 크리스찬.버나드박사는 18일 기자회견을하고, "해부의 결과는 아직 명백치안으나, 사인은 거부반응이라고보인다" 라고 말하였다. 버나드박사는 아직 "우리는 항상 심장이식수술은 치료법이 아니고, 일시적인 완화수술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식된 심장은 거부반응으로서 장애를 일으키고, 드디어는 기능하지안게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코부메이버그박사는 수술후 563일간 생존하고있었다.

탈주병이 교회에 피난피신

오노루투의 로로스,로드 교회의 감부사이에서 교회에 피난하여온 반전관인도피자의 취급에 여러 가지 의문이있는 모양이다. 시내 유니버시티가에있는 동교회에 도망하여들은 비에드넨전쟁 반대의 병장들은 22명으로 늘었다. 동교회의 주임목사로 평의원회회장의 아오기류사는 교회 방침을 발표하고, 피난을 구하고있는 탈주병, 기타의 가족과 반전파의 회원 5명에게는 교회내에 남아있는것을 허락할것을 명백히하였다. 병사들은 동정적인 반전파에 관계가있는 청년들도 같이 교회에 기숙하고있다. 아오기류사는 설명중, 본건에대한 육설위원회는 탈주병 5명과 반전파 2명을 참가시키기 위해 인원을 증가할것을 발표하였다. 동위원회는 피난시설의 장래의 방향을 결정하는것으로, 평 20일 오후 9시반부터 실시된다. 이날은 최초의 탈주병이 교회에 피난을 구한후 두주일이된다. 2만 병사들은 그들다른것으로, 그중에는 미대륙으로부터 동로 아와이오 온자도있다고한다.

가네오히 가일류아 와이나말로에 버스

1년만으로 오아후섬 뒤까지 버스 운행이 개시 되게 되었다. 시 교통국에서는 금요일에 버스 회사 3곳부터의 입찰을 개표하여 오래동안 끈 버스운행을 구제도에 올리게 되었다. 부속의 사태가 일어나지안는한, 늦어도 9월2일에는 결정이 남모양이다. 최초에는 가네오히, 가이루아와 와이나말로와 오노루투를 연결하는것으로, 주일에는 운행지안는다. 즉 월요일부터 오요일까지만 운행한다. 요금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 되는데, 40권이 제안되고있다. 작년 12월에 오아후의 뒷쪽에 버스운행이 시의회에서 결정 되고, 시보포에 의한 리워드족의 버스운행이 시와 리워드.버스회사간에 계약이 성립, 이미 실행되고있다. 10개월간의 계약으로 사업적으로 운행하겠다는 신정이 3곳으로부터 들어와있다.

